

당위와 이상과 현실의 접점에서

- 지방대학에서 고전문학 가르치기

조용호*

<차례>

1. 시작하는 말
2. 교육과정기의 추이와 고전문학 교육의 향방
3. 국어국문학과와 교육과정과 고전문학 교육의 과제
4. 졸업생의 진로환경과 고전문학 교육의 활로
5. 맺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대학의 전공 교육으로서 고전문학의 새로운 길 찾기'라는 기획 발표에서 기초 논문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교육자들이 고전문학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지속된다는 것은 고전문학 교육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개인적인 역량의 차원을 넘어서는 곳에 이유를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그 원인이 대학에 대한 대중의 요구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고전문학 교육의 현재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변천사, 국어국문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졸업생의 진로환경이란 문제와 관련시켜 논하였다. 이것들은 각각 교수자, 교육과정, 학생에 초점을 맞춘 논지 전개이다.

먼저 교육과정기의 추이를 검토한 결과로 교수자들이 세대마다 특징점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래서 중견급 이상의 교수들은 지식의 토대를 확충하여 주는 기본 과목을 강의하고 소장학자들은 고전문학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나누어 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여러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지식 습득을 위한 기본 과목과 현대적 활용을 위한 과목이 적절하게 분할되는 것이 좋으며, 지방대학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창작된 작품 및 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가에 대한 연구와 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서는 졸업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중시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여기에서는 고전문학 콘텐츠를 활용한 시나리오 작성과 영상 제작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지만, 조만간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교육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기본 과목에 대한 강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역할 분담과 함께 연구와 해석을 통한 지식의 생산과 축적이라는 과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개별적인 수업의 사례에 대한 제시가 아니고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성격을 지닌 채 시작된 것이었다. 따라서 고전문학 교육을 위한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전공 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하여 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교육 당사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화합이라고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고전문학 교육, 교육과정기, 교육과정, 진로환경, 지방대학, 문화콘텐츠

1. 시작하는 말

국회도서관의 전자검색 시스템에 ‘고전문학, 교육’이라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수백 편의 논저가 검색된다. 도서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전문학’이란 용어 대신에 각 장르·작품·작가명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필시 포괄적으로 검색할 때는 빠졌던 논문들이 더 나올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전문학 교수자들 모두 대동소이한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떤 유사한 고민에 빠져 있음을 뜻한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대학에서 고전문학의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반복적으로 다룬 다수의 논문들이 반증한다.¹⁾

1) 고전문학 전체를 다룬 논문만 살펴봐도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대학의 전공 교육으로서 고전문학의 새로운 길 찾기’를 다시 논해야 하는가? 일단 자성하는 자세로 그동안 모색되고 제시된 방향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행된 특수 사례에 머물러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해보자. 얼핏 보면 개인이 처한 자리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찾아 실행한 내용을 담은 논문이 많다는 점이 이런 생각을 사실로 입증해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오롯이 교수자 개인의 역량에 달렸다고 간주한다면, 그 해결도 개인의 각성과 노력에 의해 비교적 쉽게 극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가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

박영주, 「고전문학교육의 현실과 방향 정립」, 『국어교육』 9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1~25쪽; 정병현,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5~26쪽; 서유경, 「고전문학교육의 실행 현황과 향후 과제」, 『국어교육연구』 43, 국어교육학회, 2008, 59~78쪽; 최광석, 「고전문학 교육의 진단과 방법론적 설계」, 『어문학』 105, 한국어문학회, 2009, 251~277쪽; 한창훈, 「한국 고전문학교육 연구 동향과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25~48쪽; 이상일, 「광복 후 고전문학교육의 70년 도정과 나아갈 길」, 『국어교육연구』 60, 국어교육학회, 2016, 71~101쪽; 손태도, 「고전문학의 향유방식과 교육: 과거, 현재, 미래」, 『고전문학과 교육』 3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5~43쪽; 박경주, 「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과 교육』 4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35쪽. 장르나 작가에 초점을 맞춘 다음과 같은 논의들도 있다. 김석희,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의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69~85쪽; 염은열, 「고전시가 연구 및 고전시가 교육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5~40쪽; 김성룡, 「고전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작가론」, 『고전문학과 교육』 2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125~160쪽. 또한 시대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다음과 같은 논문들도 있다. 신선희,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 교육」, 『이화어문논집』 24·25, 이화어문학회, 2007, 133~157쪽; 류수열,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51, 국어교육학회, 2012, 235~264쪽; 함복희,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 교육 방안」, 『우리문학연구』 42, 우리문학회, 2014, 123~155쪽; 권순궁,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성과 고전문학 교육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6,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5, 31~55쪽.

고전문학 교육이 지닌 여러 문제의 원인이 오로지 개개인의 노력 부족과 역량 개발의 소극성에 있다고 지목한다면, 이는 문제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거나 교수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일이다. 나는 이와 달리 고전문학 교육이 혼선을 빚는 원인이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 정부의 교육정책, 시류에 예민한 대학의 근시안적 구조조정 등 사회 전반에 편재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교육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접어두고 사회구조와 세태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가 사회의 구조나 제 현상과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그 상황을 개선하거나 극복할 생각과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학의 교육 주체들은 대학이 마땅히 취업 교육의 일선에 서야 한다는 정부와 사회와 학생들의 압박과 요구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지방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들은 학령인구 감소 및 저조한 충원율이 초래한 대학 소멸의 위기와 재정적 악화를 빌미로 학과의 통폐합과 교육과정 개편을 주도하는 대학 본부의 횡포에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일쑤이다. 교수자들은 사회와 정부와 대학의 제도적인 압박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것에 더하여 교육이 시대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과 조바심에 사로잡혔고, 이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라도 지구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위와 이상을 기쁘히 압도하고 몽개버리는 현실이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투철한 교육관을 지니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교육자라도, 그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무조건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추수하기보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의 좌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학회에서 기획한 발표회의 기조 발표문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과목의 강의에 어울리는 적절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본질과 현상 및 제도적인 측면을 두루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해야겠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변천사, 국어국문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졸업생의 진로환경을 고전문학 교육과 연결하여 논의하게 된다. 이는 각각 교수자, 교육과정, 학생에 초점을 맞춘 논지 전개이다. 고전문학 교육은 교수자 개인 차원에 한정되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에,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이나 학생과 사회의 요구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의 성격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가 아니라,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모색과 공론화를 위한 제언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2. 교육과정기의 추이와 고전문학 교육의 향방

국어국문학과에서 국문학 혹은 한국고전문학의 근간이 되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개설하는 과목은 <국문학개론(고전문학개론)>과 <국문학사(고전문학사)>이다. 그것들은 국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전공의 토대이자 국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할 만한 교양의 성격도 지닌 과목이기에,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전문학 일반에 대한 지식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중견급 이상의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그들이 열린 자세로 사회와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젊은이들의 눈높이에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그런데 중견급 이상인 5,60대 연령의 고전문학 전공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기기 활용도에서 3,40대 연령의 교수자들보다 뒤처지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빠르게 수업의 구도와 방식을 다변화하는 데에도 능하지 않다. 그들은 후배 세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특정 장르나 작품의 의

미 및 작가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성격의 과목과 강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고전문학 작품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성격의 연구와 강의에서는 좀 서툰 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 신세대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성향은 <고전문학론>이라는 지 <고전문학사>처럼 지식의 전달에 충실하면서도 광범위한 영역을 훑어야 하는 강의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5,60대의 교수들이 기기 사용에 미숙하거나 변화의 물결을 외면한 채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로지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관심의 소치이거나 시대변화에 대해 오블관언하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까? 또 반대로 3,40대 교수자들이 사회변화의 물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연구와 강의에 반영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더 부지런하거나 두뇌가 뛰어나서일까? 물론 그런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나는 이런 차이는 그들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 시절까지 받아온 교육의 체제와 공부 습관 및 그 이후 교수자로서 처했던 대학의 교육환경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등과정에서의 학습경험은 고전문학 교수자들로 하여금 세대마다 상이한 교육관을 갖게 만들었고, 그것이 강의방식에도 차이를 불러오게 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기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1990년대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교육이 분권화되고 교육청과 학교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긴 했지만,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주도하는 틀을 고수한다. 이런 기조는 해방 직후 정부수립 이전부터 정해져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 첫 결과물이 교수요목기(1946~1954)를 거쳐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부터 시작된 1차 교육과정기였다. 교육과정기는 일련번호가 붙은 7차까지 이어지다가 그 이후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거쳤으며, 이제 고교학점제로 대표되는 2025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²⁾ 그러므로 현재 대학에서 고전문학 교육에 종사하는 중견급 이상의 교수들은 대부분 3차(1973~1981), 4차(1981~1987), 5차(1987~1992) 교육과정기에 중등교육을 받았고, 소장학자들은 대략 6차(1992~1997)와 7차(1998~2006) 교육과정기에 중등교육을 받았으며, 이제 막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신진학자들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중등과정을 받았다고 보면 얼추 맞다.

현재 중견급 이상인 5,60대의 고전문학 전공자들이 3차~5차 교육과정기에 중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3차 교육과정기에 학문중심 교육이 주창된 이래 5차 교육과정기까지 국어 과목에서 국어사와 국문학사가 계속 강조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교사들은 중세국어나 국문학사의 세부 지식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암기하기를 요구했고, 학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의 주입식으로 그 지식을 섭취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문학 작품의 언어와 의미에 대한 지식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머릿속에 깊이 저장하고자 하였고, 당연히 이런 학습법은 관성으로 굳어져 대학 진학 이후에도 공부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말은 결국 5,60대의 다수가 이런 방식의 공부에 익숙한 채로 지금까지 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말과 같다.

반면에 소장학자들은 대략 6~7차 교육과정기에 중등과정을 마친 사람들이다. 그 이전과 달리 6차 교육과정기에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선택과목이 늘었는데, 이런 틀은 7차 교육과정기까지도 이

2) 2025년 개정 교육과정은 원래 2022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준비부족으로 2025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늦춰졌다. 한편 1차 교육과정기부터 2009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에서의 고전문학 교육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이상일이 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 각 교육과정기의 요목과 특징에 대해서는 김대석 등의 공저서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이상일(2016), 위의 논문 및 김대석 외, 『쉽게 풀어 쓴 교육과정과 수업의 이해와 실천』 제3판, 박영스토리, 2022, 229~243쪽.

어졌다. 7차에서는 학습자중심 교육이 강조되어 교육이라는 말 대신에 교수-학습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었고, 문학교육에서도 작품의 이해와 의미 해석을 위한 필수지식을 주입하는 대신에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감상 활동이 주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어사와 국문학사 교육은 필수에서 빠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분야의 지식 습득에 요구되는 낮은 표현과 용어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지 않아도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등과정을 마친 교수자들은 당연히 사고방식이나 교육에 대한 관점이 선배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열린 자세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을 보유하게 되었다.

신진학자들은 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다. 이 시기에는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어 총 수업시수가 감축되었고 집중이수제라는 이름으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특정 교과목을 단기에 끝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학·역사·체육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수업 시간이 확대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국어를 비롯한 주요 과목의 수업 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국어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되고 수준별 수업이 권장되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과 난이도를 지닌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었다. 이는 결국 대학에서 공부의 내용과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어, 그들은 비교적 접근이 쉬운 현대문학이나 현대 국어에 대한 강의를 선호하게 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자료를 찾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은 고전문학이나 근대 이전의 국어에 대한 강의는 관심사에서 멀어졌을 공산이 크다.

이런 추이를 토대로 보면 교육과정의 틀이 전면적으로 바뀐 6차 교육과정기 이후에 중등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선배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학문을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고전문학 교육에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특징에서 이전 세대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중견급 이상의 교수들과는 달리 소장학자들이 고전문학을 이용한 스토리텔

링이나 현대적 활용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에 맞추어 교육 방법의 다변화를 시도하는 데 능한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³⁾ 이런 차이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면 선배 세대의 교수들이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위축되며 조바심을 느낄 필요도 없고, 후배 세대의 교수들이 사회와 학생들의 요구를 빨리빨리 반영할 수 있다고 자만하며 으쓱할 필요도 없다. 세대가 다른 교수자·연구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할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의미와 원인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교육에서도 역할을 분담하는 호혜적이고도 상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나는 대략 중견급 교수들이 고전문학의 토대와 기본이 되는 핵심 과목을 맡고, 젊은 교수자들이 스토리텔링의 활성화와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과목을 맡으면서 각자 최선을 다해 강의하는 것은, 서로 장점을 살려 고전문학 교육을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의에서의 적절한 역할 분담만으로 교수자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동시에 지식의 생산과 축적, 정리와 분류라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연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는 교육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 연구의 단서를 발견하고 과제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연구를 강의와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특정한 장르나 작품이나 작가에 한정해서 좁고 깊게 천착한 자신만의 연구 결과를 가져다가 그대로 학부생에게

3) 이 말이 50, 60대 교수들은 오로지 토대와 기본 연구에만 관심이 있고 기기의 활용과 사회적 요구의 수용에 무관심하며, 30, 40대 이하의 학자들은 문학사나 고전문학의 해독과 같은 기본 연구에 관심이 없거나 능하지 못하다는 뜻의 일반화가 아니다. 또한 중견급 이상의 모든 교수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응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거나, 소장학자들이 본질적인 연구주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로지 활용과 응용에만 매달린다는 뜻도 아니다. 그런 단적인 예가 이미 정년을 넘긴 연구자인 신선희가 근 20년 전부터 시작한 일련의 작업들이다. 그는 일찍부터 디지털 시대와 거기에 맞는 다양한 고전문학 활용방안을 모색해왔다. 연구와 교육에 대한 관점과 처하게 된 상황이 바뀌면 또 얼마든지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도 실제로 세대 차이와 상관없이 다른 세대에서 능한 일을 잘해내고 있는 사람도 많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수자의 태도가 아니다. 마침 국어국문학 과에는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 전공이 공존하고 있으니, 각각의 전공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와 강의 환경을 만들어가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특히 고전문학은 한자와 근대 이전의 국어를 기반으로 하므로, 문학의 해석이 문학 연구자만의 독점적인 과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향가나 고려가요를 연구하면서 국어학 분야에서 쌓인 업적과 지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분석과 문학적 해석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증받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고전문학 연구자는 연구와 교육 모두에서 종적으로는 현대문학 연구자와 협업을 해야 하며, 횡적으로는 국어학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다. 고전문학의 연구 결과를 콘텐츠의 활용과 응용으로 변환하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래에는 고전문학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나 고전문학 작품을 디지털 미디어에 얹으려는 시도가 적지 않은데, 이런 과제를 수행한 논문들을 일별하면 하나의 소스를 형식이 다른 하나의 결과물로 변환하는 OSOU(One Source One Use)의 형태가 주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⁵⁾ 물론 이런 시도 자체는 분명 눈여겨볼 만한 것이지만, 원천이

-
- 4) 이런 점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통합 교육과정 운용 가능성을 거론한 김홍규의 논의나, 고려가요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의 통합적 연구 및 교육을 문제 삼은 장윤희와 이병기의 논문은 학계의 불편한 진실을 반성적으로 뒤돌아보게 하는 고언이 아닐 수 없다. 김홍규, 「고전문학·현대문학의 통합과 새로운 교육과정」, 『한국어와 문화』 1, 숙명여대 한국문화연구소, 2007, 99~106쪽; 장윤희,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373~396쪽; 이병기 외, 「〈동동〉을 이용한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통합적 교육」, 『한국어문교육』 39,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2, 99~138쪽.
- 5) 예컨대 김수연이 수업에서 학생들과 여러 편의 설화와 소설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과 결과를 발표한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속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는 각각 대상으로 삼은 하나의 소스를 단선적으로 뮤직비디오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수연 외, 「디지털 김수성과 대학의 고전문학

되는 문학작품의 내용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영상이라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정도의 단순한 활용에서 더 진전된 응용의 단계로 발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같은 OSOU라 하더라도 소스의 내용이나 이미지를 한 번 더 비틀거나 굴절시켜 색다른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런 중간단계의 버전을 응용하여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⁶⁾ 그러면 그 최종 콘텐츠는 소스의 단순한 활용보다 훨씬 더 참신한 창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고전문학 작품의 활용과 응용력을 함양하는 강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미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식생산을 촉발하고 활용 가능성

교육], 『이화어문논집』 56, 이화여문학회, 2002, 4~26쪽.

6) 한 예로 향가 「헌화가」란 단일 소스를 사용하여 광고 영상을 제작한다고 가정하고 콘티를 짜보도록 하겠다.

〈신라시대 여성의 옷차림을 한 아름다운 여성이 옛날 평민 복장을 한 20, 30대의 남성들에게 절벽 위의 철쭉꽃을 꺾어다 달라고 부탁한다. 남성들은 모두 미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현대의 평상복을 입은 초로의 남성이 그 앞을 스쳐 지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 꽃을 꺾어와 내민다. 여성이 놀라며 어떻게 절벽 위의 철쭉꽃을 꺾어왔냐고 묻자 초로의 남성은 ‘바로 이 신발 덕분’이라고 말하며 바닥을 포함해 신발의 이곳저곳을 보여준다. 여성과 그녀 옆에 섰던 남성들이 모두 탄성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화면에는 산뜻한 신발이 클로즈업되며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바닥을 채용한 등산화 겸용의 신개념 운동화라는 광고 카피가 나온다.〉

이 광고 콘티는 「헌화가」에 대한 선행지식과 이미지를 신발 광고용 버전으로 굴절시킨 것이다. 이것은 꽃을 매개로 한 「헌화가」의 언어 텍스트를 단지 영상 텍스트로 바꾸는 단선적인 작업이 아니라, 소스에서 꽃을 꺾는다는 이미지만을 뽑아내고 그것을 비틀고 굴절시켜 중간단계인 광고 콘티로 만든 새로운 버전의 스토리텔링이다. 이 콘티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실제로 광고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소스의 평면적 활용이 아니라 굴절시켜 응용한 입체적 창작물이 된다. 이 광고는 분명 전자에 비해 진일보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헌화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훨씬 흥미를 유발하며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까지도 확대하는 상생·발전의 단계로 나아갈 때 더욱 의미가 있다는 전제이다. 지금까지 생산·축적되었고 또 생산되고 있는 지식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미디어에서 실현하는 성격의 강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식의 생산과 활용은 선순환적이고 발전적이며 호혜적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식생산을 위한 토대연구를 시효가 만료된 일로 치부해 버리고 활용과 응용에만 가치를 두는 풍조가 만연해진다면, 지식생산이라는 과업은 자연스럽게 계승되기 어렵다. 그러면 장차 학문의 발전과 지식의 생산은 중단되고 기왕에 축적된 지식 가운데 지엽적이며 당장 수용자의 관심을 끌 만한 말초적인 현상들만 떠도는 폐단이 생길 수도 있다. 절대로 학자이자 연구자로서의 본질적인 책무가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온 김에 첨언하여 토대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용 수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보자.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고전문학 가운데 해독과 해석에 이견이 많은 향가에서 설화와 여러 사람이 해독한 노랫말을 모아서 새로운 버전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 고전소설에서 전개와 결말이 다른 이본들을 다수 모아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것,⁷⁾ 서정과 서사처럼 서로 장르가 다른 노래와 설화와 소설에서 유사한 주제를 가진 작품들을 모아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것 등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버전의 스토리를 변형하여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OSOU와 MSOU를 넘어 OSMU와 MSMU로 나아가는 고전문학의 현대적 활용과 응용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7) 이런 방법에 주목한 이는 권순궁이다. 그는 「토끼전」처럼 이본 간에 차이가 많은 작품들을 활용하여 이본 다시쓰기를 제안하고, 이런 작업은 고전을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인 상호소통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창작 교육의 방안으로서도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권순궁(2015), 앞의 논문, 36~41쪽.

도 다채로운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⁸⁾

3. 국어국문학과와 교육과정과 고전문학 교육의 과제

국어국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대학에서는 학문의 분야를 나누는 방식이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것은 후발 대학이 선발 대학을 모델로 삼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결과한 것일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이 국어국문학과에서 가르쳐야 할 필수적인 과목이 있다는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어국문학과라는 익숙한 명칭과는 달리 국어학과 국문학은 성격이 전혀 다르고, 가르치는 교과목에도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서 함께 묶여야 할 당위성은 적다. 국어학은 언어학의 한 갈래로 한국인의 인식과 언어의 연관성 및 현상과 변화의 법칙에 주목하며, 탐구 대상이나 방법이 과학적인 것에 가깝다. 반면에 국문학은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한 한국인의 경험과 감정과 정서와 상상에 대해 주목하며, 연구 대상이나 방법이 직관적인 데 가깝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어 자체를 연구와 교육의 대상으로 삼거나 한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연구하고 교육한다는 점, 즉 한국어라는 공통점이 그런 조합을 가능하게 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성제국대학 설립 시부터 그 두 분야를 합쳐 놓은 이래 독자적이고도 특수한 발전과정을 밟아 왔다. 또한 고전문학을 연구하면서 국어학 분야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에, 분명 그 두 분야는 상보적으로 발전하기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근·현대문학을 전문적으로 탐구한 국문학 연구자들이 현대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국어국문학과는 교

8) 여기에서 사용된 영문 이니셜은 다음과 같다. O: one, M: multi, S: source, U: use.

수진이나 교육과정에서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 전공이 공고하게鼎立하는 형세를 취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상의 변화와 함께 학문연구에서도 세분화·전문화의 추구를 미덕으로 간주하면서 국어국문학과에서 누릴 만한 학문연구와 교육의 장점은 어느덧 사라진 채, 한 지방 세 가족처럼 소통부재 속에 이질적인 영역이 한 학과 내에 동거하는 엉거주춤한 모양새가 굳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고전문학은 어떤 비중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나는 무작위적으로 40개 대학을 뽑아 대학 요람에 수록된 국어국문학과(전공, 트랙)의 교육과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서울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15개 대학, 수도권에서는 인천대를 포함한 4개 대학, 거점국립대로는 부산대를 포함한 9개 대학, 지방 사립대로는 영남대를 포함한 7개 대학, 지방의 중소규모 국립대로는 창원대를 포함한 5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 편성된 교과목 가운데 교직 이수자용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보면, 대학마다 적게는 22개 과목에서 많게는 100개 과목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⁹⁾ 그 가운데 민속학 분야의 과목까지 포함한 고전문학 분야에는 대개 7~14개 과목이 배정되어 있고, 학과 전체의 편성과목 자체가 많은 고려대·서강대·연세대는 고전문학 과목이 각각 17·19·32개에 이른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고전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5~30% 정도이다. 이는 국어국문학과의 전공 영역을 크게 3개 분야로 나누는 일반적인 틀을 참작하고, 응용과목이나 성격상 특정 전공에 한정되지 않는 과목들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 하겠다.

9) 한남대가 22개 과목, 원광대가 26개 과목, 선문대가 28개 과목으로 가장 적은 편에 속했고, 고려대가 53개 과목, 서강대가 75개 과목, 연세대가 100개 과목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했다. 그 밖의 대학에서는 편성과목 수가 대부분 30대 초반~40대 중반에 몰려 있었다.

편성과목 수 자체가 많은 대학에서는 고전문학 과목도 장르·시기·작품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고, 편성과목 수가 적은 대학에서는 고전문학 영역에서도 기본과 토대가 되는 교과목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그 양극단에 서는 것이 서울대와 연세대이다. 서울대는 적은 수의 편성과목 속에 아주 보수적으로 예전 명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연세대는 많은 수의 편성과목 속에 대상을 세분화하고 응용적 성격을 띤 과목명도 많이 쓰고 있다. 한편 전체의 편성과목 수가 30여 개에 불과하고 과목명도 아주 보수적인 ‘~론’이나 ‘~의 세계’ 또는 ‘~의 이해’와 같은 교과목 명칭을 주로 쓴 서울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에서는 강의 스타일에서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응용에 대한 지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편성과목 자체가 많은 고려대·연세대·서강대에서는 과목명을 세분화한 결과로 특정한 장르나 작품의 세부에 대한 지식을 깊이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전문학 교과목만도 32개에 이르는 연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 그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배양하는 데서는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 반면에 스스로 강좌의 성격을 잘 배분하여 수강하는 단일 전공 학생이나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연계전공을 설계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는 전공으로 30~48개 정도의 과목만을 편성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고전문학에 7~14과목을 배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 학기에 개설 가능한 과목의 숫자, 교수와 재학생 수, 과목 당 적절한 수강인원 수를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에 단 1명의 수강 신청자만 있어도 폐강되는 일이 없다면 개설과목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개설과목의 수와 목적을 규정할 때 대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건국대의 교육과정이다. 건국대는 교직과목을 제외한 38개 교과목 가운데 고전문학과 관련된 것이 12개이고, 그 가운데 토대와

기본이 되는 지식을 함양하게 해주는 과목과 활용·응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이 6개씩으로 양분되어 있다.¹⁰⁾ 고전문학에 30%가 넘는 교과목이 배정되고 그것도 기본과 응용과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은, 거의 이상적인 배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면서 학생들의 기호에도 부응하는 교과목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고전문학 교육과 관련되어서 더 중요한 것은 편성과목의 수나 토대 과목과 활용 과목의 비율 문제가 아니다. 수업을 얼마나 흥미롭게 만들고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만드느냐가 한 과목의 강의, 더 나아가서는 고전문학 교육 전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 때시간 수업에 흥미와 기대를 안고 강의실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학에서 고전문학 교육이 성공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비결이다. 특히 고전문학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기본 과목인 <고전문학사>나 <고전문학론> 수업은 중요하다. 이들 수업에서는 전달해야 할 지식이 많아서 자칫 일방적인 강의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교재를 단조롭게 읽어가는 무미건조한 강의 방법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실력과 경륜과 기법 모두에서 역량을 갖춘 중견급 이상의 교수자가 이야기하듯 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수업에서 흥미를 얻지 못한다면, 강의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규모에 관련된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있어야 성장·발전 가능성이 크고,

10) 건국대의 요람에 있는 교과목 설명을 참조하건대 <고전읽기의 즐거움>·<고전문학사>·<구비문학의 세계>·<한문학의 세계>·<고전시가의 이해>·<고전산문의 이해>는 전자에 해당하고, <현대인의 삶과 고전>·<테마 고전특강>·<고전문학과 콘텐츠>·<고전문학과 치료>·<고전문학과 영상>·<고전과 창작>은 후자에 속한다. 기본과 토대에 대한 교육과 활용과 응용에 대한 과목이 절반씩 편성되어 있어 국어국문학과와의 교육 과정을 개편할 때 중요하게 참고할 만하다.

소재지를 지방으로 한정하면 규모는 클수록 살아남을 여지가 많다. 아무리 大馬不死를 외치지만 지방의 대규모 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중소규모의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으며, 불과 얼마 전까지 공고한 것처럼 보였던 지방 명문대의 평판이 많이 퇴색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은 생존 자체가 급선무일 정도로 목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의 상황은 더욱 위태롭겠지만, 국립대학이라고 해도 그런 사정에서 마냥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¹¹⁾ 지방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온전히 정원을 채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학마다 여러 학과를 통폐합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최소한 이른바 잘나가는 학과에 정원을 떼어주고 규모를 축소하면서 근근이 버텨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어국문학과와의 지속적 발전과 고전문학 교육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대학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수자들이 전공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그간 유지해왔던 교육과정 편성의 관성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교수들이 사회와 현실과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비슷한 교육과정 아래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표면적인 현상이 ‘왜 모든 대학에 국어국문학과가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처럼 무지한 발언이나, 사회에서 국어국문학은 먹고사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유발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다. 유독 인문

11) 목포대의 사례를 들어보자. 내가 학회에서 기조 발표를 한 것이 2023년 2월 16일인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목포대에서는 중대한 학사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다.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밀리듯 대부분의 학과가 통폐합되거나 쪼개져 학부 단위의 편제로 바꾼 것이다. 국어국문학과도 국어국문학 전공과 문예창작 전공으로 나뉘게 되었다. 국립대마저 이런 지경이라면 사립대에서는 그 이상의 상황 전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교수자의 신분 안정과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 분야에 대해서만 이런 무지한 발언들이 난무한다는 점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거의 모든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비슷한 이름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 혹은 그렇게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 중장기적인 고민거리로 삼아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물론 국어국문학과라면 당연히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의 연원이 길고 존재했던 장르가 많으므로, 대학의 교육과정에 큰 차이가 없는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또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인해 동일한 과목명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외부인들이 잘 모를 것이기에,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과 많이 다르다고 아무리 억울함을 하소연해봐야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 모두 엇비슷한 커리큘럼을 짜놓고 있다면, 학생이 가능한 한 생활과 문화적 환경이 더 나은 지역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대학마다 독자적이고 비교우위를 가질 만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성격이 드러나는 과목명으로 명시하여 수험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그 지역에서만 배울 수 있는 내용을 흥미롭게 가르쳐서 학생들의 관심을 붙잡아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문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이다.¹²⁾ 그리고 그 일은

12)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나는 지구화 시대에 걸맞게 서구의 방법론도 취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해당 지역의 특징을 간직한 텍스트를 취하여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장한철의 「표해록」을 거론하였다. 조용호, 「지구화-지방화 시대의 국문학 연구와 교육」, 『인문학논총』 3, 국립7개대학 공동논문집간행위원회, 2003, 29~48쪽. 한편 각주 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포대에서는 학사구조 개편이 이루어졌으므로, 곧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어국문학 전공에는 문예창작 전공으로 옮겨갈 현대문학 전공자 2인을 제외하면 4인이 남게 된다. 현재 시점에서의 인적 구성은 국어학과 국문학에 각각 2인씩이며, 국문학에는 고전문학과 민속학 전공자가 하나씩 있다. 목포대는 학칙으로 각 학과가 편성할 수 있는 과목 수를 32개로 제한하고 있다(여기에 교직과목 3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게 될 교수들이 숙의하여 전체적으로 잠정적인 개편안을

역사가 오랜 고전문학 분야에서 먼저 맡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래서 흥미는 물론 당위와 관련하여 지역 문학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겠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에서는 지역의 인물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고양하고 자부심과 애향심을 키우는 동시에, 지자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졸업생들의 취업이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역 문학이 가진 특색을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다행히 고전문학은 지방색이 많이 나타났던 조선시대의 작품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니만큼, 각 권역을 대표하는 대학에서는 충분히 그런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살펴본 40개 대학에서 그런 교과목을 편성한 곳은 많지 않았다. 인천대의 〈인천의 언어와 문학〉, 제주대의 〈지역문학론〉, 전남대의 〈로컬문학과 고전문학〉, 경북대의 〈지역한문학현장론〉이 그 정도였다. 이런 교과목의 개설은 다른 대학에서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그런 강의가 학생들이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고전문학과 연계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국어국문학과 의 재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고전문학 작품 가운데 무엇을 배웠고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 입학 이전에 배웠던 고전문학 작품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보았다.¹³⁾ 그

마련하였는데, 그 결과 교수마다 기본 6과목을 배정하고 공식으로 남게 될 현대문학 분야에도 6개 과목을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외에 전공의 기본과 심화 과목에 해당하는 〈한자와 생활〉 및 〈국어국문학과 인접 과학〉을 더하여 총 32개 과목을 두기로 했다. 또한 내가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의 문학에 대한 과목은 불가피하게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13) 나는 미래엔·좋은책 신사고·창비·비상·천재·동아 등 6개 출판사에서 나온 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고전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는 6종이었고(좋은책 신사고에는 중학교 교과서가 없었고 천재에는 2종이 있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국어·독서·문학 등의 이름으로 나온 21종이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향가·시조·설화·소설·수필이 실려 있었는데, 그 수록된 숫자가 매우 미미하므로 유의미한

결과 독서 교과서를 제외한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는 상당수의 고전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개중에는 여러 교과서에 중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¹⁴⁾ 물론 여러 종의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 장르를 대표하는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들은 대학의 고전문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촉발할 때 유용하게 인용할 만한 연계성 높은 작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강독 과목은 물론 개론적 성격의 과목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미 배운 익숙한 작품들을 두루 거론하면서 학생들의 기억을 각성시키면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이 자리 잡은 지역과 관련된 익숙한 고전문학 작품을 그 지역의 지형이나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면 흥미 유발의 효과는 배가될 것임에 틀림없다.

고려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고등학교에서는 국어·독서·문학 교과서가 고전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아주 적어서 국어와 문학에 실린 것들만 보아도 별문제는 없다.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은 장르 상으로도 고전문학 전체를 아울렀고, 작품 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고전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14) 앞의 각주에서 거론한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 15종에 수록된 작품들은 고전문학 전 장르를 포괄한다. 고대가요에서는 현전하는 3수 가운데 「공무도하가」가 3종, 향가는 수록된 5수 가운데 「제망매가」가 9종, 고려가요는 수록된 9편 가운데 「서경별곡」과 「가시리」가 각 4종의 교과서에 실렸다.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총 32수 가운데 평시조로는 윤선도의 「만홍」이 6종,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 5종, 송순의 「십년을 경영하여」가 4종의 교과서에 실렸고, 사설시조는 「님이 오마 하거늘」이 4종의 교과서에 실렸다. 가사는 수록된 5편 가운데 「속미인곡」이 7종의 교과서에 실려 압도적인 데다가 나머지 4편 가운데에도 정철의 「사미인곡」과 「관동별곡」이 「누항사」 및 「상춘곡」과 함께 동일하게 3종의 교과서에 실렸다. 소설은 23편이 수록되었는데 작품으로는 「춘향전」이 10종(이본 포함)의 교과서에, 작가로는 박지원의 것이 8종의 교과서에 실려 가장 많았다. 설화는 수록된 15편 가운데 「주몽신화」와 「단군신화」가 각각 4종의 교과서에 실렸다. 수필은 수록된 작품 15편 가운데 이규보의 「이옥설」과 정약용의 「수오제기」가 각각 3종의 교과서에 실렸고, 한시는 10수 가운데 정지상의 「송인」이 3종의 교과서에 실렸다. 기타 장르에 속한 것으로 「용비어천가」가 6종의 교과서에, 가전문 「공방전」이 3종의 교과서에, 「봉산탈춤」이 7종의 교과서에, 민요 「정선아리랑」이 4종의 교과서에 실려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다.

4. 졸업생의 진로환경과 고전문학 교육의 활로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지방의 거점 국립대 및 대규모 사립대와는 사뭇 다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지방의 중소규모 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겠다는 생각이 수도권 대학이나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 입학생들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은 편이다. 입시면접을 해보면 시인이나 작가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학생도 드물게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도 아주 간혹 있지만, 대개는 특별한 계기가 없거나 그냥 책 읽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는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해봐야 자기 삶을 꼭 책으로 남겨보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국문과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수업에 흥미와 관심을 끌게 만들거나 진로 지도를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물론 대학생이 되어서까지도 너무나 어렵거나 현재의 삶과 무관하다면서 최대한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해야 하는 고전문학 교수자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학과의 분위기와 전공수업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서, 졸업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도움을 줄 만한 강의를 없으니 무엇 무엇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마음대로 관련 분야의 교수를 뽑을 수도 없고 학과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대학의 역할 및 졸업생의 진로환경에 대하여 모르는 체할 수 없는 것이 교수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하다. 교수자들이 수업 중에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해보려는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하겠다.

디지털 혹은 미디어 다양성 시대라는 말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우리는

사회로부터 대학이 마땅히 취업을 위한 최종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거기에 맞춰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자들도 고전문학에 바탕을 둔 콘텐츠 제작이나 스토리텔링처럼 학생의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강의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고전문학 작품 자체는 이미 완료된 역사적 사건의 산물이라서, 일반인들은 물론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조차 일반적으로 고전문학이 우리의 삶과 긴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고전문학에 투영된 옛사람들의 삶과 경험과 의식과 상상력과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만드는 일은 고전문학 교수자에게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고전문학에 대해 배우는 것이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서도 긴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국문과 졸업생들이 진출할 만한 방향을 생각해보면, 곧바로 고전이라는 문화콘텐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리게 된다. 그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는 대부분 고전문학 작품이나 과거의 역사기록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이는 고전이 매우 활용 가능성이 큰 콘텐츠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실제로 고전문학 작품에는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만한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잠재되어 있기도 하다. 고전문학을 폭넓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충실하게 교육하는 일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더 필요한 과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모든 국문과 졸업생들이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지만, 고전문학을 활용한 현대적인 콘텐츠 제작이라는 신세계가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고전문학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동기는 마련된 것이라 생각한다.¹⁵⁾

세계에서 한국적인 것이 강조되고 문화상품으로 각광 받는 이 시대에,

스토리텔링의 소스로서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가치를 보더라도 고전문학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반드시 고전문학 강의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텍스트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수집·정리·해석을 거쳐 새롭게 지식을 창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도 잊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무시하고 가공과 활용이라는 표피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언젠가는 소스는 물론 상상력도 빈궁해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콘텐츠도 참신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큰 감동과 울림을 주기 어렵게 될 것이다.

졸업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고전문학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문) 설치 문제이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니 신중하게 관망해야 하지만, 이는 교사 양성의 근간을 재편하는 기획이므로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의 진로환경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 교육부장관은 2022년 12월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에게 변화의 동력을 주기 위해 교대와 사범대를 전문대학원화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2023년 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4월 중으로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15)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가 시와 소설 등 개인 창작의 문예물은 물론 논문까지 그럴듯하게 써내고 표절 검사를 무시히 통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시나리오를 쓰는 일이라고 해서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출간과 함께 작가의 손을 벗어나는 개인 창작물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오는 완성된 이후에도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작가와 감독을 비롯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대사와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빈번하고 촬영 후에도 편집작업이 추가되게 마련이므로, 시나리오 창작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제작에는 상대적으로 챗GPT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게 내 판단이다. 그러나 고전문학에 대한 지식을 깊이 배우고 그 활용 방법까지 다양하게 경험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성격의 교과목과 수업 경험이 졸업 후의 진로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 및 교·사대 혁신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교전원 졸업자에게는 전문석사학위(M.Ed) 또는 전문박사학위(Ed.D)를 주며 정교사 1급의 자격을 부여하겠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9일의 설명자료에서는 '교직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자에게는 정교사 1급 자격 부여, 호봉 가산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일견 교전원을 만들어 교사가 되는 길을 단일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한 교육부의 취지와 명분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런 문제라면 현행제도에서도 임용고시 합격 후 수습 기간을 1~2년 거치게 하고, 그 사이에 전문가과정을 연수시키는 방식으로든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논란이 무성할 것이 분명한 교전원 설치 이슈에는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교원양성 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아닐까 한다. 물론 교육부 설명자료에서는 '교전원 제도는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것은 마치 분홍 코끼리의 역설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란 블랙홀에 빠져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서 교전원의 설치는 사대+교직과정+교육대학원 통합과 교대+교육대학원 통합이라는 대학 내 자체조정 방식, 그리고 교대+교대와 교대+사대와 사대+사대라는 기관 간 통합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니, 필연적으로 교원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과정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교전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졸업생 전체 혹은 법전원 정도만큼의 비율이라도 임용을 해야 할 것이므로, 원하는 모든 대학이 교전원을 만들기도 어렵고 입학 정원 자체가 줄어든 것도 불문가지이다.

많은 논란을 거치더라도 끝내 교전원이 설치되고 그 안에 국어교육 전공까지 두게 된다면, 국어국문학과는 교전원 국어교육 전공 과정 입학 자원

의 주된 공급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교전원 설치는, 해당 대학에 교전원이 설치되든 안 되는 간에 상관없이, 특히 지방대 국어국문학과와 활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¹⁶⁾ 이는 교전원의 입시방식과 전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전원 입학 후에 전공을 선택하도록 열어두는 방식이다. 교육부에서 밝힌 것처럼 교직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전원 입학 기회를 주려면,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미리 정한 뒤에 출제하고 성적순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식 아래에서라면 국어교육 전공에는 학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공산이 크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전공을 지망하여 입시를 치르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라면 교육학 일반과 전공 지식을 묻는 입시 또는 전공지식만을 평가하는 입시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국어교육 전공에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거나 국어국문학을 복수 혹은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우선 지원하고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경우나 국어국문학과 학생이나 졸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대학 전체를 봐도 국어국문학과와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학과 폐지나 정원감축이라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전원의 설치는 지방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와 고사를 막고 부활을 기대하게 만드는 생명의 단비가 될 수도 있다.

중등과정에서 국어와 문학은 핵심적인 과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전원의 설치 및 운영은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어국문학과와 교육과정에서 고전문학은 적어도 1/4

16) 교전원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는 말은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사범대 국어교육과는 사라졌거나 국어국문학과와 통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미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화콘텐츠학과나 다른 이름으로 학과명과 교육과정을 바꾼 학과에서는 국어국문학과로 환원시키는 일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국어국문학과라는 명과 실을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 대학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희소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는 당연히 고전문학 분야의 개설과목이나 강의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전원에 국어교육 전공이 설치되는 한 고전문학 교육은 기본과 토대가 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과목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뜻이다. 문학의 콘텐츠화나 고전문학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글로 쓰인 고전문학 작품을 미디어라는 형식으로 바꾸어놓는 방식의 강의는, 적어도 당장 입시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찾는 교전원 지원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공산이 크다. 또한 국어와 문학에 대한 지식과 전통을 교육내용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중등과정의 교사들에게는 고전문학의 활용을 위주로 하는 과목은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보조과목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대학의 고전문학 교육에서 활용과 응용으로만 치달아서서는 안 되고, 토대 및 기본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활용과 응용에 대한 강의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교전원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런 역할 분담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이나 실제의 강의에서도 그 균형을 맞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이 논문은 ‘대학의 전공 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의 길 찾기’라는 기획주제에 부응하여 작성한 기초 발표문을 토대로 하여 집필된 것이다. 나는 올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발표문에서조차도 ‘지방대학에서 고전문학 가르치기’라는 부제를 달아 범위를 한정하긴 했지만, 최대한 많은 교수자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거론된 내용들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 국어국문학과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담고 있으며 고전문학 교수자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

라 믿는다.

나는 본문에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만한 뭔가 뚜렷한 해결책이나 주목할 만한 대안도 내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고전문학 교육이 갈피를 못 잡는 현 상황이 전적으로 교수자 개개인의 무능력이나 게으름의 소치가 아니라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현재의 혼탁한 상황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요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인사들의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결정, 그리고 말단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변화를 해결책으로 내놓은 대학 본부의 근시안적인 판단이 뒤섞여 빚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교수자들은 대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고전문학 교육이 방향성을 잃게 된 현실에 대해 지나치게 자학적이거나 자기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나태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대신에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을 먼저 찾아서 실마리를 풀어가며 어려움 속에서라도 미래를 설계해보는 것이 훨씬 건전하고 건설적이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국어국문학을 포함한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악화를 포함하여 고전문학 교육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전문학 교육이 성공하는 최고의 비결은 교수들 간에 유지되는 좋은 관계 그 자체라고 본다. 본문에서 기본 과목과 활용 과목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거나, 세대에 따라서 가르칠 교과목도 적절히 분배하고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판단과 무관치 않다. 물론 그것이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상식과 객관적인 판단에서 합의된 산물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말이다. 상식적이며 객관적인 교과목의 편성과 강의자의 역할 분담은 교수들의 화목한 관계에서 온전히 합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전혀 엉뚱하고 황당하기만 한 생각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이처럼 고전문학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새로운 길도 우리가 그렇게

찾아오던 경천동지할 특별한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기에애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평범한 인식 속에 있다는 것이 나의 평소 지론이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학과활동이나 수업과 관련된 일에서 교수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하며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이런 근심이 없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과 학과활동에 두루 참여하게 되고, 어떤 교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성적 취득과 취업에 가장 유리할지 간을 보는 영악하고 이기적인 고민도 하지 않게 된다.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면, 당연히 고전문학 강의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며 수업 내용에도 흥미를 갖게 된다. 그러면 교수자들도 구태여 고전문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혹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강의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와 같은 비본질적인 고민으로 골머리를 썩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 학과구성원들 간에 서로 단합하고 이해하는 일이 고전문학 교육의 길을 찾는 근본적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양보하고 양해하며 함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맹자의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하늘이 만든 때는 지세가 주는 이로움만 못하고, 지세가 주는 이로움은 사람들 간의 화합만 못하다)’라는 말을 상기해보자. 天時를 현재의 시대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라고 이해한다면, 오늘날은 고전문학 교육을 위한 천시로는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地利가 천시보다는 낫다고 했으니 여기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지리란 교육의 방법론이나 환경 등 교수자와 학습자를 둘러싼 여건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건은 예전에 비하여 확실히 개선되었으니, 교수자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불리한 때를 극복할 희망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리적 환경도 人和 즉 교육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에서의 신뢰와 존중과 화합보다는 못하다. 그러므로 앞에서 교수들 사이의 화기에애한 관계가 교육을

위한 최고의 비결이라고 한 말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여기에 노자의 ‘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성이고 유약한 것이 도의 쓰임새이다)’이라는 말을 덧붙여보자. 노자의 이 말은 처음이자 유약한 것에 해당하는 기본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맹자적인 개념에서는 천시나 지리가 아니라 인화를 중시하라는 것이며, 고전문학 교육에서는 현대적 활용보다는 토대 혹은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과목을 중시하라는 말과도 다를 바가 없다. 구성원들 간의 인화와 기본 과목에 대한 충실한 수업이 고전문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이런 점이 ‘대학의 전공 교육으로서 고전문학의 새로운 길 찾기’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논지 전개상 본론에서는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겨우 글의 말미에서야 꺼내게 되었다. 이에 대해 혹자는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맹랑하여 김이 샌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변화와 갱신을 거치며 이어온 대학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을 통째로 바꿔버릴 만한 파천황적인 방법이 갑자기 나올 수 있겠느냐는 말로 반문하고 싶다. 사실 부분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으며 강의방식을 개선해가는 것은 개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제시되고 니열된 사례들 또한 모든 이가 따라서 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단편적인 시도에 머무는 것도 사실이다. 또 그런 참된 노력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칫 혼자만 잘난체한다거나 독불장군 같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없지 않다. 결국 새로운 길 찾기는 방법론의 새로운 모색이나 소개가 아니라, 본질을 망각하지 말고 기본과 현대적 활용 모두에서 윈-윈 하자는 마음가짐과 서로 협력하며 목표를 조화롭게 실천하는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자 결론인 셈이다.

참고문헌

- 권순궁,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성과 고전문학 교육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6,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5, 31~55쪽.
- 김대석 외, 『쉽게 풀어 쓴 교육과정과 수업의 이해와 실천』 제3판, 박영스토리, 2022, 1~288쪽.
- 김석희,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의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69~85쪽.
- 김성룡, 「고전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작가론」, 『고전문학과 교육』 2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125~160쪽.
- 김수연 외, 「디지털 감수성과 대학의 고전문학 교육」, 『이화어문논집』 56, 이화여문학회, 2002, 4~26쪽.
- 김홍규, 「고전문학·현대문학의 통합과 새로운 교육과정」, 『한국어와 문화』 1, 숙명여대 한국문화연구소, 2007, 99~106쪽.
- 류수열, 「고령 사회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51, 국어교육학회, 2012, 235~264쪽.
- 박경주, 「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과 교육』 4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35쪽.
- 박영주, 「고전문학교육의 현실과 방향 정립」, 『국어교육』 9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1~25쪽.
- 서유경, 「고전문학교육의 실행 현황과 향후 과제」, 『국어교육연구』 43, 국어교육학회, 2008, 59~78쪽.
- 손태도, 「고전문학의 향유방식과 교육: 과거, 현재, 미래」, 『고전문학과 교육』 3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5~43쪽.
- 신선희,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 교육」, 『이화어문논집』 24·25, 이화어문학회, 2007, 133~157쪽.
- 염은열, 「고전시가 연구 및 고전시가 교육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5~40쪽.
- 이병기 외, 「〈동동〉을 이용한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통합적 교육」, 『한국어문교육』 39,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2, 99~138쪽.
- 이상일, 「광복 후 고전문학교육의 70년 도정과 나아갈 길」, 『국어교육연구』 60, 국어교육학회, 2016, 71~101쪽.
- 장윤희,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

- 육연구학회, 2002, 373~396쪽.
- 정병현,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5~26쪽.
- 조용호, 「지구화·지방화 시대의 국문학 연구와 교육」, 『인문학논총』 3, 국립7개 대학공동논문집간행위원회, 2003, 29~48쪽.
- 최광석, 「고전문학 교육의 진단과 방법론적 설계」, 『어문학』 105, 한국어문학회, 2009, 251~277쪽.
- 한창훈, 「한국 고전문학교육 연구 동향과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25~48쪽.
- 함복희,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 교육 방안」, 『우리문학연구』 42, 우리문학회, 2014, 123~155쪽.

ABSTRACT

At the interface between justification, ideals and reality
- teaching classical literature at local university

Cho, Yong-ho

This article was written as a keynote paper in a planning presentation titled "Finding a New Way to Classical Literature as a Major Education of the University." Although many educators have already suggested new ways to educate classical literature, discussions on this topic are repeated. This means that the problems arising from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are reasoned beyond the dimension of personal competence. I judged that the cause was the public's demand for universities and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In additi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irection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were viewed from three directions. These are the history of changes in Korea's education curriculum period, curriculum opened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he career environment of graduates. These are the development of thesis focusing on instructors, curriculum, and students, respectively.

First of all,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trend of the education curriculum period, professors revealed that each generation has features. Therefore, it was desirable for senior professors to give lectures on basic subjects that expand the foundation of knowledge, and young professors to share education on the modern use of classical literature. Next,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various universities was reviewed. As a result, it is recommended that basic subjects for knowledge acquisition and subjects for modern use be properly divided, and local universities need to study and lecture on literary works and writers created in the region. Finally, it emphasized the need to open subjects related to the career paths of graduates. This

includes lectures on scenario creation and video production using classical literature contents. However, it was also emphasized that lectures on basic subjects should be emphasized in order to enter the education school, which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soon. However, it should never be forgotten that the task of producing and accumulating knowledge through research and interpretation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along with this division of roles.

This article began with the character of suggesting the direction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not presenting examples of individual classes. Therefore, instead of suggesting a special plan for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we had no choice but to discuss the framework in which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as a major education could be activated. Nevertheless, the most important secret to the success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was the warm human relationships and harmony formed between the educational parties. This is because this is one of the basics necessary for education.

Key Words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education curriculum period, curriculum, career environment, local university, cultural contents

논문투고일: 2023.03.20.
 심사완료일: 2023.05.04.
 게재확정일: 2023.05.04.